

# 생명에 대한 사랑이 가장 존귀하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36 관음보살의 자비심에 대한 고찰

전 회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볼까요?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푸른 바다의 좁쌀 한 톨' (滄海一粟) 같고, '번갯불이나 부딪쳐 나가는 반짝임' (電光石火)처럼 짧은 우리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또 그런 커다란 관점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갑자기 장자(莊子)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장자 책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북쪽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답니다. 그 이름이 큰(鯨)이지요. 그 큰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르는데요. 그 물고기가 변하여 봉(鵬)이라는 새가 되죠. 그 새의 크기도 어마어마. 몇 천리가 되는지 역시 모르답니다. 이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구만리를 날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뱀새가 웃지요. "나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기도 힘든데 구만리를 날아서 뭐하자는 거야?"

이런 장자의 이야기에서 봉정만리(鵬程萬里)라는 말도 나왔고, "대봉의 뜻을 뱀새가 어찌 알리오!"라는 말도 나오지요. 그 봉새의 눈으로 본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요? 참으로 작은 것들이 꼬 무라거리는 모습이 하찮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성급하게 그러니까 "장자는 봉새처럼 높고도 큰 이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로구나!"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봉새를 이상형으로 여기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왜냐구요? 봉새처럼 큰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뱀새처럼 작기에 좋은 점도 있거든요. 봉새는 크기 때문에

또 얼마나 불편한가요? 머무르는 곳만 해도 어지간히 넓지 않아서는 그 몸을 담을 길이 없습니다. 뱀새처럼 쫓겨 날아오를 수도 없어요. 그 큰 몸을 피우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예비할 때까지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각각 자기 분수에 만족할 때 각각의 행복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장자의 첫머리에 나오는 대봉이 단지 그런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 대봉처럼 훌쩍 뛰어 이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려는 뜻을 품지 않으면 이 일상의 잠깐 의미로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관점에 빠져서 아동다용하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부질없는 것 같은 것을 하염없이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초월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초월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이냐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삶에 절절 매면서, 끝없는 탐착에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꾸는 계기가 필요한데, 앞에서 말한 대봉과 같은 초월적인 관점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세요. 밤에 가면 더 좋겠군요.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마다 나와 비슷하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곳이 관조하는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어떻게요? 뭔가 자기의 삶을 남의 눈으로 보는 듯한, 좀 허무하면서도 초연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여 "아! 나 나 나 다 그저 그런 작디작고도 멧없는 존재들이구나!"하는 식의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빠지지 않고, 윤희함 속에 무한을 담아 나가는 의미 있는 불퇴전의 삶을 살아가보자는 겁니다. 한 차원 높은 눈으로 삶을 관조하였기에 오히려 큰 자세로 이 삶을 꾸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 내려 볼 때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대봉과 같은 아득한 상공에서 우리 삶을 본다면 어떻게요? 우주선을 타고 이 구를 내려다보면 어떻게요? 저 북극성 좀 되는 곳에서 본다면요? 하! 점점 아득하게 나가면 좀 겁나죠?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숨 한번 크게 쉬고, 가슴을 펴고, 좀 초연한 마음으로 내 삶을 관조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쉬 갖기 힘들기에 대봉과 같은 거창한 비유를 드는 것이지요.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남께서야말로 바로 상근이요. 대근이이십니다.

진원대선의 '소매 속에 세상을 끌어 담는' 신통한 술법을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군요. 다시 한 번 복습해볼까요? "소매 속 세상이 크기도 하고, 표주박 속 세월이 길기도 하여라!" 이 한마디 말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시간과 공간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진원대선과 같은 위대한 경지를 이룬 분들에게는 이 세상 전체를 소매 속에 넣고도 넉넉하게 여유가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그런 큰 경지를 가진 분 앞에서 손오공의 재주도 소용없습니다. 현장법사라는, 신통력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애틀단지(?)가 있는 이상 바로 바로 잡혀올 수밖에요.

그런데 진원대선이 잡아오기는 했지만, 손오공을 다루기는 또 어렵네요. 손오공은 천궁에서 태상노군의 단약 만드는 화로 속에서도 버티는 몸이거든요. 매를 쳐도, 기름에 삶아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현장법사가 손오공의 아킬레스건이네요. 손오공으로 안되니까 삼장법사를 때리고 싶으려 하니, 그건 손오공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오공 큰소리를 치고, 인삼과 나무 살려 내겠다고 나섭니다. 현장법사를 비롯한 나머지 인질이 되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 인삼과 나무가 완전히 비보통(非普通) 초특별(超特別) 나무네요. 여러 유명한 신선들이 두루 찾아가서 방도를 구해도 길이 없다는군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이 나무 살리지 못하



그림 · 최주현

## 불교의 처음과 끝은 자비심

### 불자 자비증장 기회 가져야

#### "자비행은 전법행으로 이어져"

스러운 상황에서도 한줄기 희망의 빛을 틔우는 위대한 힘,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보살의 자비심에 대해 찬탄하며, 그 끝없는 가피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읽어 보시면 관세음보살의 그 대자대비한 가피력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지요? "내가 만일 칼산 지옥가면 칼산 저절로 썩어지고, 내가 만일 화탕지옥 가면 화탕 저절로 마르리라!"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가 그러하기에, 관세음보살에 기도하고 찬탄하는 우리 행자들은 그 대자대비의 한 자락을 우리 몸에 실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손 가운데 하나의 손이고자, 천개의 눈 가운데 하나의 눈이고자!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자비의 발원이 큰 깨달음을 이루어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자비는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줍니다. 지혜가 자비를 일으켜내고 자비가 지혜를 일으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 없는 자비 없고, 자비 없는 지혜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바로 대자비가 원동력이 됩니다. 조잔하게 자신의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존재, 결코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금강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 잘 아시지요? 위없는 큰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다구요? 모든 중생을 영안에 들게 하겠다는 마음에 머물며, 그렇게 마음을 항복받겠다고 하지요? 사후서원의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아닌가요? 이런 것들 모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비심이아말로 불교의 처음이자 끝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보리의 뿌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장 뛰어난 점은 이 자비심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서유기에서는 자비심의 화신으로 관세음보살이 나오시고, 그 자비심의 무한한 힘을 거의 숲이 된 버들가지도 살려내는 위대한 힘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현실의 불교는 너무 자비심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저 깨달음을 강조하거나, 기복에 매달리거나, 그러면서 정작 자비행에는 좀 등한하지 않은가 싶네요.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자비가 없으면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정말 올바른 수행을 하려면 큰 자비심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에 올바른 수행 풍토도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반성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관세음보살의 등장으로 인삼과 사건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떨어졌던 인삼과까지 주렁주렁 다시 열리고, 관세음보살 방문 기념으로 인삼과 파티도 열리고, 약속대로 진원대선과 손오공은 결의형제를 맺고... 기타등등 기타등등. 그래서 서유기도 계속 이어지네요. 인삼과 먹고 합당한 수행을 더욱 기운차게! 그런데 인삼과 먹어 합당한 수행도 얻고 기운차게 출발한 것은 좋는데, 현장법사를 노리는 요괴들은 더욱 많아지고 극성스럽게 탐하게 되네요. 본래 당나라의 성승은 요괴들이 노리는 보양식(?)이었는데, 인삼과까지 먹어 완전 비보통, 초특별 보양식이 되었으니까요. 힘나서 가는 만큼 난관도 커지네요. 이걸 도고 마장(道高魔長) - "도가 높아지면 마군도 자란다"고 하던가요? 더 세진 요괴들, 합쳐가 물리치는 이야기... 기대하세요.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물,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영광 : 010-5759-8804	홍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인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 규격화 초점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출구 12E 3구, 4구 / 인저구 26E 4구, 5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 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형(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인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형별 용품**

인자형, S형, T본리형, LED야형, LED등대형, 건전지 초

▶방생, 탐몰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